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산업경제연구부 조원지 부연구위원
(063-280-7194)

보도시점: 2020년 2월 15일(월)부터

농업, 전북 취약계층과 함께!

전북연구원,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‘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’(통권 241호)을 발간하고, 농업활동을 통해 전북 취약계층이 사회통합 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.
- 농업·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농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, 교육,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다.
- 이탈리아에서 기원된 사회적농업(social farming)은 ‘치유농업’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, Iacovo와 O’Connor(2009)는 ‘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의 교육, 돌봄, 고용을 촉진하거나 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’으로 정의하고 있다.
-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「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」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검증하며 2021년 기준 전국 60개 사회적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.

- 전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이 10개소로, 사회적 농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,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. 지난 2020년 11월 13일 「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며,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박사(산업경제연구부)는 “전북 도민들이 국내에서 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사회적농업이 무엇인지, 무엇을 하는 것인지 등 정확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.”며 사회적농업 확산에 사회적 이해 교육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- “전라북도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지만, 아직은 정책적, 사회적으로 사회적농업 실천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.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전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농장 육성, 운영·관리,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여건을 반영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.